

한국어 성경의 평서법 문장 종결형 고찰

전무용*

1. 머리말

성경에서 사용된 평서법¹⁾ 문장의 종결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라’ 종결형을 사용한 문장과 ‘-다’ 종결형을 사용한 문장이 그것이다. ‘-다’ 종결형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았/었)다’를 사용한 문장과 ‘-(았/었)습니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라’ 종결형 문장은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로부터 1938년 『성경개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평서법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해 왔다. 성경의 평서법 문장에서 ‘-다’ 종결형이 사용된 것은 1967년의 『신약전서새번역』에서 처음이다. 이 책에서는 평서법 문장으로 ‘-(았/었)습니다’를 사용하였다. 현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채택한 평서법 문장이다. 그 후 1972년의 『공동번역 신약성서』와 1977년의 『공동번역 성서』, 1993년의 『성경전서표준새번역』²⁾, 2001년에 가톨릭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성경』 등에서는 모두 ‘-(았/었)다’ 꼴의 평서법 종결형이 사용이 된다.

‘-라’ 종결형을 사용한 성경의 종결형은 ‘의고체’ ‘성경체’ ‘문어체’ ‘성서문체’ 등의 이름으로 옛 문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고,³⁾ ‘-다’ 종결형을 사용

* 전무용,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 1) 고영근은 ‘문체법’을 ‘의지적 서법’과 ‘무의지적 서법’으로 구분하고, ‘설명법어미’ ‘-다, -라’를 형태론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보고, 기본형을 ‘-다’로 정하였다. 만일 설명법어미 ‘-라’와 명령법어미 ‘-라’가 같은 말이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이라면 다른 방식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고영근,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974 7), 118-157. 윤석민은 ‘설명법’의 의미에 대해서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청자에게 주관적 정서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화자가 판단할 때 사용되는 문장종결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다’를 종결형으로 사용하는 현대국어의 설명으로는 잘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라’ 종결형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윤석민, “현대국어 문장종결법 연구(I)-설명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1995), 263-292.
- 2) 『성경전서표준새번역』 (1993)에서는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서신에서는 편지글의 문체를 살려 ‘-습니다’를 평서문의 종결형으로 사용하였다.
- 3) 정길남은 ‘문어체’로, 표성수 나채운 등은 ‘성서문체’로 표현하였다. 손세모들은 『성경직희』에서 ‘글’과 ‘나르다’를 쓴 데 비해서 ‘독립신문’이 ‘말하다’를 쓴 것과 같은 예를 들면서 문어체 (의고체)와 구어체를 구분하고 있다. 다분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구분이다.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법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239; 표성수, “한글성서 문체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소고 -오대주요번역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

한 성경의 종결형은 ‘언문일치’ ‘구어체’ ‘현대문체’⁴⁾ 등의 이름으로 현대어 문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구분 방식은 언어의 본질에 따른 구분이나 설명이라기보다는 언어 외적인 구분이나 설명 방식이다. 이들 각각의 종결 형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나 기능에 따른 언어 내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요한복음 1장(특히 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형식의 종결형이 사용된 양상을 살펴본 다음, 각각의 종결형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⁵⁾, 성경의 텍스트가 사용되는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평서법 종결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 절만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에서 종결형이 사용되어 온 통시적 변화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처음에 도가 이스되 도가 하느님과 함께 하니 도는 곳 하느님이라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1882)

② 처음에 도가 이스되 도가 하느님과 함의 하니 도는 곳 하나님이라 (예수성교전서, 1887)

③ 元始有道ト(니) 道偕神ト(하고) 道卽神ト(이라) (이수정 新約聖書約翰傳, 1884, 한글 필자)

④ 태초에 말씀이 잇스니 말씀이 하느님과 궤치 계시매 말씀은 곳 하느님이시라 (성경전서, 1911)

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개역 1938)

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

대학교교육대학원, 1971);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4), 344; 손세모돌, “『성경직히』 문장의 문체적 특징”,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91), 75-109.

4) 옥성득은 ‘-라’ 종결형을 사용한 문체를 ‘문어체’로, ‘-다’ 종결형을 사용한 문체를 ‘구어체’ 또는 ‘현대문체’로 정리하고 있다. 류대영 외 『대한성서공회사 II』에서는 성서 번역사를 기술하면서, 신문 잡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 종결형 현대 문체를 ‘문어체’로, ‘-라’ 종결형을 사용한 당시 성경의 문체를 ‘구어체’로 말하고 있다. 박현순도 ‘구어체’와 ‘문어체’, ‘성서문체’와 ‘현대어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영진 『국역성서 연구』에서는 기미독립선언문과 같은 한문 혼용 문체에 비교하면서 ‘-라’ 종결형을 ‘언문일치 문체’로 구분하고, ‘-다’ 종결형을 ‘현대적인 문체’로 구분하였다. ‘언문일치’라는 말이 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3), 58-6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62-169; 박현순, “국역성서 어휘와 문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1988), 33-41; 민영진, 『국역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58, 163.

5) 박나리는 “국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서법어미에 대하여”에서 특히 ‘-어, -지, -네’의 의미기능을 논의하되 “비격식의 해체”라는 점에 중요점을 두고 살피고 있다. 관점과 관심 영역의 차이로 인해 본고와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곳이 있지만, 종결형 자체의 의미를 찾고 있다. 박나리, 『이화어문논집』 18 (2000), 321-346.

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새번역신약전서, 1967)

⑦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표준새번역, 1993)

⑧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공동번역성서, 1977)

⑨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성경[가톨릭], 2005)

위에 인용한 예문을 보면, ‘-이라/-이시라/-이시니라’ 꼴의 종결형을 사용한 번역본들(①~⑤)과, ‘-이셨습니다’ 꼴을 사용한 번역본(⑥)과, ‘-이셨다’ 꼴을 사용한 번역본들(⑦~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종결형을 사용한 번역들에는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내용에 따라 ‘-라, -니라, -러라, -느니라, -더라, -리라, -지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종결형 ‘-라’와 결합된 이들 선어말어미 ‘-니-, -러-, -느니-, -더-, -리-, -지-’ 등은 각각 본문의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들 종결형에서 평서법 종결 형식으로 ‘-라’를 찾을 수 있다.

‘-다’ 종결형을 사용한 성경 중에서는 ‘-(았/었-)습니다’ 꼴을 사용한 종결형 문장과 ‘-(았/었-)다’ 꼴을 사용한 문장을 볼 수 있다. 이 두 형식은 청자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존비법의 차원에서 주로 언급이 되어 왔고, 문체법의 차원에서 설명형 종결 형식으로서의 논의가 별로 되지 않았다. 성경 본문의 평서법 문장의 종결 형식을 생각할 때에 이 두 형식은 아주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형식이 모두 사용 가능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이유로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본문의 설명형 문장이 단순히 청자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의 차원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라’ 종결형과 ‘-다’ 종결형의 의미의 차이

2.1. ‘-라’와 ‘-다’를 보는 두 견해

종결형 ‘-라’와 ‘-다’가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라는 견해도 있고⁶⁾,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형태소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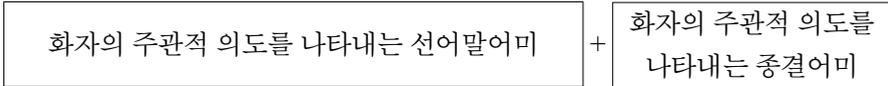
6) 유목상, 고영근, 장윤희, 이유키 등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유키는 이전의 두 견해를 잘 정리하고 있다. 유목상, “이다(이라) 고”, 『어문논집』 2:1 (1962), 15-60; 고영근,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974 7), 122;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

이광호의 논문에서 특히 이 견해를 잘 밝히고 있다⁷⁾.

안상준은 평서법 종결어미 ‘-다’와 ‘-라’가 결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들을 조사하고 선어말어미의 유형에 따라 이들이 달리 결합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다/-라’의 독자적인 의미 속성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고 하였다.⁸⁾ 이승욱은 평서법 종결어미 ‘-다’와 ‘-라’가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들의 원소성을 밝혔다. 평서법에서 종결어미 ‘-라’와 통합관계를 갖는 선어말어미들 ‘오/우, 리, 니, 더/러, 애/에, 로, ∅’ 등의 원소성을 ‘가능성’[주관성]으로 밝히고, ‘-다’와 통합관계를 갖는 선어말어미들 ‘∅, 이, ㄴ, 아/어, 거, 도/로, 닷/랏’ 등의 원소성을 ‘확실성’[객관성]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승욱도 ‘-라’와 ‘-다’가 각각 고립적으로는 “시차(示差)적 지표(指標)성이 없다”고 하였다.⁹⁾

이광호는 이승욱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라’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다’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낼 수 없는 평서법의 종결어미’로, 각각 종결형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¹⁰⁾

{오/우, 리, 니, ㄴ씨, 더/러, 과/와, 로, 소, 애/에, 노, 이} + {라}



또한 명령문 종결어미 ‘-라’에서 화자의 의사를 그대로 따라줄 것을 강요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평서문의 종결어미 ‘-라’에서도, 명령문의 ‘-아라/어라’만큼 화자의 의도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의 일부가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평서법의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이, ㄴ, 가/거(나, 것), 시, 도/로, 닷/랏, 노(낫), 샷}과 직접 통합하며, 이들 선어말어미들에 [-의도]의 의미 특질을 부여하고, 이들과 결합하는 ‘-다’도 [-의도]의 의미 특질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손법 선어말어미 ‘-이-’ 존경법의 ‘-시-’ 가상법의 ‘-거/가’ 등이 ‘-

구] (서울: 태학사, 2002), 128; 이유기, “후기 중세국어 종결어미 ‘-다’와 ‘-라’의 관계”, 『동악어문론집』 29 (1994), 327-354.

7) 이광호,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 (1983), 137-168.

8) 안상준, “15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74).

9) 이승욱, “종결형어미의 통합적 관계-{-다} · {-라}의 소성 기술을 위하여-”, 『난정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80), 283-300.

10) 윤석민은 ‘-라’의 가능성 주관성과 ‘-다’의 확실성 객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분포에 나타나는 ‘-다’와 ‘-라’의 차이를 문체론적 차이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6), 78-84.

다'와 결합되는 것이 화자 자신의 의도를 내세우지 않는 '-다'의 의미 특질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설명하였다.¹¹⁾ 이광호는 또 평서법의 '-라'가 화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관점에서 명령법의 종결어미 {아라/어라}와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듯 하다고 완곡하게 제시하였지만, 바탕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말이 다른 환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¹²⁾

서태룡은 이승욱과 이광호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능성이나 불확실한 서술을 나타내는 '-라'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사실상 두 사람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¹³⁾ 이유기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유기는 선어말어미와 정결어미의 결합 관계를 좀더 정밀하게 고찰하여 살펴면서도 몇 가지 이유로 이광호의 의견을 반대한다.¹⁴⁾ 그중 하나의 근거가 중세국어에서 '체언+이라' 구성의 문장만 쓰였다는 것으로 '라'와 '-다'가 의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변이형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현대국어에 와서 대부분의 문장어들이 '-다' 종결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면 현대문에서 '-다' 종결형을 모두 다시 '-라'로 바꾸어도 의미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중세국어 '라' 종결형 문장을 모두 '다'로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도 종결형을 바꿀 경우에 의미가 같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점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루게 될 것이다.

이유기의 반론의 근거 중 일부는 일부 선어말어미의 의미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더-'가 '-라'와 통합하는 이유를 의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더-'는 논자가 설명하는 것처럼¹⁵⁾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험되고 인지되어서 내면화된 사실을 보고 또는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¹⁶⁾ [+의도]의 '-라'와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다. '-도/로-'와 '-소-'는 의미적으로 유사한데도 종결어미의 통합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했는데, 엄밀하게 볼 때는 '-더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11) 이러한 의미 특질과 관련하여 볼 때 '-고라/-고이다', '지라/지이다'의 의미도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 '-라' 형식이 의도가 내포된 형식임에 비해서 '-다'가 의도가 내포되지 않은 형식의 겹손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12) 명령형의 '-(아)라'와 감탄형의 '-라'가 가지는 [+의도]의 의미는 오히려 평서법 종결어미 '-라'의 의미 속성을 '주관성, 의도성' 등으로 밝히는 반증 자료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가능성만을 제기한다. 가능성 제시의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 국어의 용법을 일부 고찰할 것이다.

13)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7), 97-100.

14) 이유기, 후기 중세국어 종결어미 '-다'와 '-라'의 관계, 『동약어문론집』 29 (1994), 327-354.

15) Ibid., 342.

16) 서태룡은 이를 “과거 지각”으로 규정하였다.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158-168.

각의 선어말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변별적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선어말어미에도 의미 속성상 중요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흐노라, 흐노다’의 ‘-노-’는 일인칭 동작주의 행동에 대한 진행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형식으로, ‘흐도다’의 ‘-도-’는 화자의 경험을 의도 없이 제시하는 형식으로, ‘-로다, -로라’의 ‘-로-’는 경험된 것에 대한 화자의 생각(뜻)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흐노다’를 오자일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어떤 뜻을 표현한 것인지를 찾는 방식으로 본문을 생각할 수 있다. 두시언해 중간본의 ‘흐노다, 너기노다, 하엿노다’ 등의 ‘-노-’를 동작주에 대한 진행상으로 이해하면 현장성/진행성(‘-노-’)을 담아서 객관적(‘-다’가 내포하는 [-의도성] 곧 객관성)으로 제시하여 드러내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노라’는 동작주의 동작에 대한 진행상을 담아서 그 상태를 설명하는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노다’는 동작주의 동작에 대한 진행상(‘-노-’)의 중립적 제시(-다)로, ‘-도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도-’)의 중립적 제시로, ‘-로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로-’)의 중립적 제시로, ‘-로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로-’)의 주관적 제시(‘-라’)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도소-’에 사용된 ‘-소-’의 경우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삿 6:22)에서 사용된 ‘-소-’와 같이 청자를 높이는 화자의 뜻을 담은 선어말어미로 보아서 무리가 없다.¹⁷⁾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높임의 ‘-이-’와 겸손의 ‘-다’가 오는 형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¹⁸⁾

이광호의 논의는 선어말어미와의 관계로부터 종결형의 의미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라’와 ‘-다’가, 추출된 것과 같은 의미 속성을 띠고,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거꾸로 살피는 것도 이러한 논의를 증명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2.2. 현대국어에서 ‘-다’와 ‘-라’의 용법

‘-라’ 종결형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말로도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다.

⑩ 이거 내꺼+라. (명사+조사; 설명/단정/주장/서술/의견)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합쇼 할 자리에 쓰는 종결어미 ‘-사오이다’의 준말로 설명하고 있는 ‘-소이다’의 ‘-소-’와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말로 생각된다.

18) ‘ㄴ, ㄷ, ㄹ’ 등이 결합한 형식이 가지는 의미 추정에는 박창해의 의미 추정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 자체를 밝히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아니므로,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친다.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서울: 탑출판사, 1990), 236.

- ⑩ 아니(아이)+라. 기+라. (형용사+어미; 부정/긍정)
 ⑪ 가+라. 해+라. 그거 나(를) 주(조)+라. (동사+어미; 명령/간청/부탁)

⑩은 설명이나 단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강한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언제나 아주 강한 주장이 담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소유에 대한 주장이 아닌 말에도, 말하는 이의 주장이 담긴다고 하는 사실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거 참꽃이라.’ ‘아이라. 이진진달래라.’ 하고 말한다 해도, 그 안에는 말하는 이의 주장이 내포된다.

⑪도 말하는 이의 강한 주장이 내포된 말이다.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이의 강한 주장이 늘 내포되어 있다. ‘아니-, 기-’ 자체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주장은 아니다. 주장은 ‘-라’에 담긴다. 단순히 말하는 이가 먼저 알고 있던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을 한다면 ‘-라’도 사실 전달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아니다, 기다’ 하고 말할 때도 말하는 이의 주장이 담길 수 있다. ‘그건 꽃이다’ 하고 말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실 전달 기능의 어법으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와 ‘-라’가 의미 차이가 없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두 말의 차이는 이 말들을 동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⑫는 명령이든 부탁이든 간청이든, 말하는 이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들에 ‘-다’를 붙여 보면 차이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 ‘가다, 하다, 나(를) 주(조)다’와 같이 동사에 ‘-다’를 붙여서 사용해 보면 ‘-라’를 붙일 때와 확연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가라’와 ‘가다’의 차이는 ‘-라’와 ‘-다’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차이이다. ‘-라’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내포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형용사 뒤에 사용되는 감탄형 ‘-라’와 동사 뒤에 사용되는 명령형 ‘-라’는 전혀 다른 형태소로 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도’라는 의미의 동질성으로 보아 같은 말이 다른 환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라’의 의미 속성을 확인하는 방편으로만 제시한다.

‘-다’는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내포될 수 없고, 또 명령이 될 수 없다. 위의 세 보기 문장에서 사용된 ‘-라’는 ‘설명, 단정, 주장, 서술, 의견, 부정, 긍정, 명령, 간청, 부탁’ 등의 모든 상황에서 말하는 이의 의도가 내포된다.¹⁹⁾

19) 윤성진은 ‘-라’를 ‘ㄹ+아’ 형태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는데, 이것도 이 말을 좀 더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진은 ‘주관적인 서술’로 느껴지는 것을 ‘ㄹ’의 영향으로 본다. 윤성진, “어미 ‘-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0),

- ⑬ 이건 책이라.
⑭ 이건 책이다.

⑬과 ⑭는 사실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거의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진다. 엄밀하게 차이를 설명하자면, ‘-라’는 말하는 이의 내면 의도를 진술하는 말이고, ‘-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말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건 책!’이라고만 말해도 말하는 이의 주장을 담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책이다’라는 말로도 주장을 담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면적인 주장이나 의도를 담은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말하는 이가 ‘-다’를 사용하면서 주장을 담는 것은 사실을 드러내는 형식에 주장을 엮어서 씌는 것이다. ‘-다’ 자체는 내면의 의도를 드러내는 언어적 형식은 아니다.

사실상 ⑬과 ⑭는 언제든지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장의 종결형에서 같은 자리에 교체되어 실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서도 본 대로 이 차이는 이 말이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붙으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 ⑮ 가라, 예빠라.
⑯ 가다, 예쁘다.
⑰ 가네, 예쁘네.

‘-라’가 동사 다음에 붙으면 명령이나 간청이 되고, 형용사 다음에 붙으면 감탄이 된다.²⁰⁾ 모두 말하는 이의 주관적(내면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제시)이다. 동사 다음에 ‘-다’가 붙으면 명령형이 될 수 없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의 의미를 띠게 된다. 형용사 다음에 붙어도 말하는 이의 내면적인 느낌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된다.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느낌을 드러내는 말임을 감안할 때, 감탄형 진술이 되는 ‘예빠라’와 사실을 드러내는 형식의 ‘예쁘다’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쁘.’는 주관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다’가 붙음으로써 주관이 객관적으로 제시된다.

‘-네’가 붙으면 ‘공간 상황 제시’의 속성이 부여된다.²¹⁾ 박창해는 ‘ㄴ(n)’에 대

54-55. ‘-아/-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고자 한다.

20) 권재일은 “명령어미 ‘-어라’가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감탄법을 실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명령형 ‘-라’와 감탄형 ‘-라’가 같은 말이 다른 자리에 실현된 것이라고 증명하는 맥락은 아니지만, 두 형식 모두 말하는 이의 ‘의도’를 담는다는 점에서 볼 때, 같은 말이 다른 자리에 실현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서울: 민음사, 2009), 95.

21) 박나리의 앞의 글에서는 장경희(1985)에서 제시한 [현재지각]의 속성을 지지하면서, [현재지각]한 사실을 정감적으로 표현]한다는 서범의미를 찾고 있다. ‘정감적 표현’은 상황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보이고, ‘현재지각’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간 상황 제시’라는 속성에 대한

해서 ‘진행’의 의미를 제시했다.²²⁾ 또 연결 접미사 ‘-니’에 대해서 ‘사실 설명, 이유, 원인, 상황 설명’ 등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²³⁾ ‘-니, -니-, -느-, -노-, -나, -네’ 등 ‘-니’ 형태소가 포함된 말들에는 [+공간성, +동태성, +현장성, +현실성]의 바탕 의미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²⁴⁾ ‘진행’[+공간성, +동태성, +현장성, +현실성]이라는 바탕 의미를 전제로 맥락과 화용 양상에 따라 진행, 사실 설명, 이유, 원인, 시제 등의 의미들이 부가된다. 서태룡은 ‘-으니’에서는 ‘결정, 완료’로 인지되는 의미를 밝히고, ‘-으니’에서는 ‘상태 유지’의 의미를 밝히면서 맥락에 따라 부가되는 ‘연결’의 의미를 밝혔다.²⁵⁾ 이러한 의미들 안에도 근원적으로 ‘진행’[+공간성, +동태성, +현장성, +현실성]이라는 바탕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니라’에는 ‘-니’를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간화 현장화 현실화 하여 말하는 의미가 내포된다.

⑮ ⑯ ⑰을 비교해 보면, ‘-네’에서 공간성을 느낄 수 있지만, ‘-라’나 ‘-다’에서는 공간성을 느낄 수 없다. 동사나 형용사와의 결합에서 본 것처럼, ‘-다’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온 말이 가리키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공간성 없음) 기능을 하는 말’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사 다음에 붙는 ‘-다’를 살펴보면 그 뜻이 선명해진다. 특히 ‘가다가, 먹다가’처럼 쓰면, ‘-다’가 ‘가-, 먹-’ 등의 동작이 실현되어 있는 상황을 비동태적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와 같이 인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서도, ‘-다’를 통해서 경험된 상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여기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담기지 못한다. ‘공간적 진행 상황 제시’의 의미도 담기지 못한다. 회의록을 기술할 때에 흔히 ‘-하다’ 형식의 문장을 사용한다. 동태적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의 차원을 사실적(비동태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뻐다’ 하면 ‘예쁘-’가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었-’이 한 시점의 공간상

설명의 하나로 생각된다.

22)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 236.

23) 박창해,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428.

24) 고영근은 서술성 어미에서 ‘-니’와 관형사형 어미 ‘-니’에서 동일한 형태 ‘-니’를 발견하고, 이를 시제의 관점에서 의미상의 상관성을 밝히려 하였다. ‘시간’과 ‘공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의 양면이다. 이를 ‘+공간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용 형태가 잘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시간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영근,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7 (1982), 1-56.

25)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62-79.

26) 경험미 ‘인지적’ 형식으로 제시되는 ‘-더’와 ‘가시적’ 형식으로 제시되는 ‘-다’가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으로 대립이 되어 서로 반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이렇게 짝을 지어 살펴보면 대립적인 두 말의 의미 영역과 속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분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곳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짝을 지어 살펴보는 것은 조심스럽다.

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다’가 그 느낌을 사실화 객관화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예쁘네!’ 하면 현재적 상황 묘사적 속성이 드러나고, ‘예뻐라!’ 하면 주관적 속성이 드러난다. 각각의 종결형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종결형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물론 ‘예쁘다!’ 하면 감탄형 진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객관적 진술에 감탄을 얹어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명형 묘사이든 감탄형 진술이든, ‘-다’의 의미 기능은 다르지 않다. ‘예쁘다’를 ‘예뻐’와 비교해 보면, ‘-어’로 끝나는 형식이 말하는 이의 느낌을 느낌 그대로 드러내는 반면, ‘-다’로 끝나는 형식은 말하려는 것을 객관화시켜 ‘사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라’와 ‘-다’ 문장의 문체적 의미

앞에서 ‘-라’가 말하는 이의 의도를 담고 있는 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는 객관화 하는 속성이 있는 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라’와 ‘-다’의 문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의 번역 팀에서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매킨타이어 목사는 『중용언해』를 중심으로 하고 『삼락언해』를 참고적으로 사용하면서 한국어 ‘토(조사 어미)’를 연구하여 발표한다.²⁷⁾ 『중용언해』의 ‘-라’ 종결형 사용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⑱ 道는 可히 須臾도 離티 몬홀 꺼시니 可히 離홀 꺼시면 道 | 아니
라(중용 1b)
⑲ 喜와 怒와 哀와 樂의 發티 아닌 積을 中이라 니르고(중용 2a)
⑳ 中은 天下에 큰 本이오 和는 天下에 達호 道 | 니라(중용 2a)
㉑ 故로 君子는 그 獨을 愼호 느니라(중용 1b)
㉒ 子 | 堯으샤디 道의 行티 몬홀을 내 아노라 (중용 3b)

위 ⑲에서 보듯, ‘-이라’는 인용 안의 간접발화상황에서 사용된 종결 서술형이다. 들을 이를 직접 상정하지 않는 상황의 종결 서술형이다. ⑱에서 사용된 ‘- | 아니라’는 직접발화상황의 종결 서술형이다. 간접발화상황의 ‘-이라’와 같은 형

27) John Macintyre, “NOTE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8 (1880), 149-156, 230-234와 9 (1882), 28-33, 89-95, 219-223. 전무용(2007, 2008), “매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월간)창조문예』 12:1, 132 (서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2008:1), 161-169.

식의 종결 서술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직접 들을 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장으로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종결 서술형은 존비법에 따라서 보면 낮춤의 형식이지만,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직접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발화상황’의 ‘-이라’와 같은 형식의 종결 서술형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문의 내용이 직접 상대에게 입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 형식이 성립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체를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닌 중립적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해라’체의 반말로만 이러한 문장 형식을 규정하여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장이 구현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공유되어 온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체를 ‘평상적 설명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²⁹⁾

성경에서 ‘-(ᄃᆞ/이)나라’와 ‘-(ᄃᆞ/이)라’는 확연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약성경』(1911) 요한복음 1장에서만 간단하게 살펴도 다음과 같이 ‘사실 제시’와 ‘눈 앞의 공간 상황 제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 ㉓ 하느님이시라(1:1)
- ㉔ 심명은 사람의 빗치라(1:4)
- ㉕ 다 밋게 흠이라(1:7)
- ㉖ 증거허러 온 자라(1:9)
- ㉗ 흠 빗치 … 빗최는 것이라(1:9)
- ㉘ 밋는 자라(1:12)
- ㉙ 이 사람을 ᄃᆞ침이라(1:15)
- ㉚ 그리스도가 아니라(1:20)
- ㉛ 지은 물건이 … 업느니라(1:3)
- 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 계심이니라(1:15)
- ㉝ 독싱즈가 나타내섯느니라(1:18)
- ㉞ 길을 꺾게 ᄃᆞ라 ᄃᆞ얏느니라(1:23)

28) 고영근은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화 문장을 [+상관성]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지문과 같이 화자의 일방적인 진술의 성격을 띤 문장을 [-상관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영근,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7 (1982), 5.

29) ‘-이라’와 ‘-이다’의 문체를 모두 ‘평상적 설명체(평상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서정수는 격식체의 존대와 비존대, 비격식체의 존대와 비존대를 나누고 있다. 이는 박창해 『국어구조론』(1962년 등사본)에서 사용한 “정식 용어, 평교 용어” 이후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분이다. 여기서 평상체라 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전제로, 그동안 존대(높임)으로 분류해 왔던 형식을 ‘격식체’로, 비존대(낮춤)로 분류해 왔던 비격식적 친밀어 형식을 모두 ‘평상체’로 구분하는 것이다. 서정수, 『수정증보판국어문법』(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1015-1021;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 232-235.

③⑤ 이 일은 ... 벳아니에서 흐엿스니(1:28)

③①의 ‘-느니라’와 ③②의 ‘- | 나라’에서는 ‘-니라’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라/아니라’가 가지는 사실 진술의 차원에서 ‘-니-’가 추가된 형식이다. 이 말이 추가됨으로써, 진술의 차원이 사실 진술에서 사건 진술의 형식으로 전환된다. ‘돌이 단단하다’ 하면 사실 진술이 되고, ‘돌이 단단했다’ 하면 사건 진술이 된다. ‘진행’[+공간성, +진행성, +현장성, +현실성]의 속성이 있는 ‘-니-’가 추가됨으로써 그 진술이 세상 안의 사건으로 공간화 현장화(현실화)되는 것이다.³⁰⁾ 사전에서는 ‘-니라’를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 줄 때에 예스럽게 쓰이는 종결 어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사실’은 ‘-이라’가 드러내는 규정적 사실 차원이 아니라, 공간화하여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기심 고영근(1988: 345)에서는 ‘-니라’를 ‘원칙평서문’이라 부른다. ‘공간성 현실성’이라는 속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적 규정 형식보다는 ‘-이니라’로 표현되는 ‘상황 제시적 형식’[+공간성]이 훨씬 현실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③⑥ 하느님이시라 (성경전서, 1911, 요 1:1)

③⑦ 하나님이니시라 (성경개역 1938, 요 1:1)

③⑥와 ③⑦의 종결형은 각각 ‘주관적 사실 진술[-공간성](③⑥)’이라는 의미와 ‘세상 안의 현실로 현장성 현실성을 부여한 진술[+공간성](③⑦)’이라는 의미 특성을 나타낸다. ‘-라’가 문장에서 종결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간접대화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 형식이라는 점에서 발화자와 청자 사이에 확실한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높임의 형식이 아니므로 낮춤의 형식이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는 이 말이 중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을 제공한다. 어떤 환경에서든 종결형 ‘-라’는 ‘근원적으로’ 말하는 이의 의도가 의미상으로 내포되는 말이다. 말하는 이와 표현된 문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형식이라는 말이다. ‘가라, 예빠라, 내꺼라, 꽃이라’ 등의 모든 형식의 종결형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라’로 끝나는 문장은 언제나 말하는 이가 전제된다는 것을 뜻

30) 김영옥은 ‘-니’에 대한 연구 관점을 동명사적 관점, 서법의 관점, 시제의 관점 등에서 논의되었다고 정리하고, 공형태로 ‘-니’를 설명하고자 했다. 김영옥은 여기서 ‘몬흐리니라(원각경하 2-2:11), 몬흐리러니라(석보상절 19:34)’ 등을 들어 ‘객관적인 사실로 진술’하는 말이라는 데에 반대한다. 그 앞에 온 다른 선어말어미의 존재와 상관 없이 ‘-니라’의 ‘-니’의 의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영옥,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공형태의 설정과 비문법화”, 「관악어문연구」 14:1 (1989), 27-36.

한다. 물론 말하는 이가 없는 문장은 없다. 그러나 ‘가라’와 ‘가다’의 차이에서 보듯, 말하는 이가 강력하게 문장 안에 들어앉아 있는 표현(가라)과 말하는 이가 있든 없든 상황이 상황 자체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표현(가다)은 차이가 크다.

- ㉞ 철수가 가(+아).
- ㉟ 철수가 가라.
- ㊱ 철수가 가네.
- ㊲ 철수가 가다.
- ㊳ 철수가 간다.
- ㊴ 철수가 갔다.

㉞ ㉟ ㊱ 모두 말하는 이가 강하게 전제된다. 물론 ㊲ ㊳ ㊴ 모두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과 무관하게 사실이 사실 자체로 독자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언어 형식이다. “이건 책이야.” 하면 ‘-야’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드러나고, “이건 책이다.” 하면 ‘-다’를 통해서 사실 자체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1920년 즈음에 한국의 문장 문체는 일대 전환을 겪는다. ‘-라’ 종결형 문체가 사회 전체에서 확연히 줄어들고, ‘-다’ 종결형 문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 앞에 온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가시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말’인 ‘-다’ 종결형이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라’ 종결형으로 된 홍길동전 같은 소설은 이야기꾼이 ‘-라’ 종결형 안에 들어 있는 형식이다. 고대소설 전체가 같은 형식이다. 현대소설로 오면 ‘-다’ 종결형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꾼이 소설 문장 밖으로 빠져나온다.

㊴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오후 두 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리찍는 유월별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이광수, 무정)

㊵ … 탕 임금의 버금이라 … 각위에는 간성지장이라 … 사해에 굳은 기운이 원근에 어리어 있더라 … (열녀춘향수절가, 완판본)

이광수의 “무정” 첫 문장(㊴)에서는 이야기꾼이 문장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곳은 없다. ‘-다’ 종결형 문장을 통해서 사실 자체만 드러난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문장 형식이다. 이에 비해서 ‘-이라 -이라 -있더라’로 종결 형식을 사용하는 『열녀춘향수절가』(㊵)의 첫 세 문장의 종결형에는 ‘-라’와 ‘-더

라' 속에 이야기꾼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다. '-다'와 '-라'의 전환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세계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설 문장에서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와 교과서의 모든 문장에 반영이 된다. 다만 옛 문체의 문장과 현대 문체의 문장이라는 언어 외적 설명만이 아니라, 이처럼 언어 자체의 본질에 근거를 둔 의미 규명 방식으로 이 차이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어에서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라'와 '-다'의 문체적 차이의 특징의 하나로 '주관을 드러내는 표현'과 '객관을 드러내는 표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성경의 평서법 종결형으로 사용된 '-라'와 '-다'

초기 성경으로부터 성경에 평서법 종결형으로 사용된 '-라' 종결형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교 경전을 언해하던 언해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초의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매킨타이어는 유교 경전의 언해문을 가지고 한국어를 연구하고 공부했다.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이수정은 중국어 고전 한문 번역 본문에 구결식 현토를 붙인 번역으로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 유교 경전의 언해문의 '-라' 종결형의 한국어 문체가 번역 성경에 반영이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핀 대로 '-라' 종결형은 근원적으로는 입말에 뿌리를 둔 종결 형식으로서, 소리 내어 읽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잘 어울리는 형식이었다. 또 문장을 통한 '간접발화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의 문체로 거부감 없이 채택될 수 있었다. 성경 본문들은 근본적으로 구전으로 전승되던 전통이 있는 본문으로, 또 신앙공동체 안에서 낭독으로 구연되어 사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문체와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라' 종결형을 사용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낭송에도 잘 어울린다. 이에 비해서 '-하였다' 체의 현대 문장체 종결형을 사용한 번역은 소리를 내서 읽기에는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근원적으로 이 형식이 입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터지는 소리인 'ㄷ' 소리의 느낌도 낭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볼 때 'ㄹ' 소리는 소리 내서 읽을 때에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다' 종결형은 '객관주의'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현대적 사유를 반영하는 문체이다. 사실이 사실 자체로 객관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적 사유나 현대적 어법에 잘 어울리는 형식이다. 그러나 구연자가 배제되는 '-하였다' 체의 문체는 소리 내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체이다. 성경의 본문이 사용되는 환

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공중의 예배 때에 낭송이 되는 환경과, 개인이 혼자서 눈으로 읽는 독서 상황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하였다’ 체의 문장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러나 소리 내서 읽는 환경을 염두에 둘 때에는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말하는 이가 배제되는 형식의 글말체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라’ 종결형이 오히려 입말체 문장이고, ‘-하였다’ 체가 글말체 문장체 문장이다. 특히 ‘-하였다’ 체는 입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장체 문장이다.³¹⁾ 그렇더라도 ‘문어체’라고 부르던 ‘-라’ 종결형의 옛날 책 문투의 문체를 ‘구어체’로, 또 ‘구어체’로 부르던 ‘하였다’ 체의 현대문체를 ‘문어체’로 부르자고 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므로, 잠정적으로 ‘주관적 설명체’와 ‘객관적 설명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5. ‘-(이엇/하였)습니다/-입니다’ 형식의 번역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에서 ‘-습니다’를 설명형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의 ‘-하’에 대해서 박창해는 양식접미사로 분류하고, “발화인의 표현 양식에 예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겸허 접미사”로도 표현한다.³²⁾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합쇼 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합쇼할 자리”라는 규정은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꼭 적절한 규정이라 하기 어렵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이러한 종결형을 사용한다면 “합쇼 할 자리”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방송 뉴스에서 이러한 형식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합쇼”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 말하는 이 이외의 대상을 높이는 ‘-시’와는 달리, ‘-하’은 말하는 이 자신의 겸양과 공손을 나타내는 형태이다.³³⁾ ‘하셨습니다’ 하면, 상대 높임은 ‘-셨-’에 담기고, 말하는 이 스스로 정중하게 겸양의 예를 갖추는 것은 ‘-습-’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국어의 ‘-습니다/-입니다’는 중세국어 ‘스뵈, 습, 스오’ 계열의 말로부터

31) 일부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32)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 229.

33) 남기심 고영근은 ‘-하’을 ‘상대높임법’으로 정리하였고, 고영근은 ‘습’을 ‘객체높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나)는 갑니다.’ 하고 말한다면, 내용 전체가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유독 ‘-하’만 상대를 높이는 형식이라 하기 어렵다. 안병희(1961)에서는 ‘습’을 “주체겸양법의 접미사”로 규정하였다. 필자는 ‘말하는 이가 겸양과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로 보며, 상대를 높이는 것은 이에 부수되는 효과로 본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서울: 탑출판사, 1987), 149; 고영근, 『개정판표준중세국어문법론』(서울: 집문당, 2008), 142.

이러지는 말로서, 겸손법 종결형이다. 최현배는 ‘낮춤 도움줄기’(謙卑補助語幹)로 이 말을 분류하고, ‘옵, 오, 뵈, 자옵, 자오, 잡, 사옵, 사오, 삼, 습’ 등 여러 가지로 변천하고 발달하였지만 뜻은 꼭 같다고 하면서, “그 말하는 이 스스로를 낮추는 동시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⁴⁾ 이에 비해서 허웅은 조선 초기의 중세국어에서 ‘-습’의 기능을 상대존대(겸양)로 보지 않는다.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든다.³⁵⁾

④⑥ 그 王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뵈니라(월인 1:7)

④⑦ 혼 므스르로 더 부더를 보스뵈라(월인 8:22)

④⑧ 너희 이 供養 밍그라 國王을 請흐스뵈려 흐는다 王子를 請흐스뵈려 흐는다 大臣을 請흐다 (월인 2:196)

이 인용문들에서 허웅은 ‘너희’와 종결 형식에서 낮춤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대를 높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스뵈’는 그 앞에 온 동사들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위의 ④⑧ 문장(월인 2:196)에서는 ‘국왕’이나 ‘왕자’에 대해서만 ‘스뵈’를 사용했고, ‘대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④⑥ ④⑦에서도 모두 왕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를 뵈는 상황을 말하면서 ‘스뵈’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법은 “나는 선생님 뵈고 싶어. 너는 선생님 뵈고 싶지 않니?” 하고 말하는 상황에 ‘보+ㅣ+뵈’를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용법이다. 대상에 대하여 말하는 이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보아 아무런 무리가 없는 말들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말로 보아서 무리가 없다. ‘상대존대’는 ‘겸양, 공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⁶⁾

장수경은,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이라’, ‘-더라’, ‘-올시다’ 등의 서술 방식이 『소년』지 등의 계몽잡지에서 ‘-하오’ 체의 서술 방식을 거쳐 1920년대 『어린이』지와 함께 나타난 ‘-습니다’ 체로 변화하는 과정과 의미를 살피면서, ‘존중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습니다’ 체의 구술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³⁷⁾ 1920년대 전후에, 그리고 그 이후의 문체의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34) 최현배, 『우리말본』(서울: 정음사, 1929/1987¹⁴), 355.

35) 허웅, “14C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김중손, 『국어경어법연구』(서울: 집문당, 1984), 159-216.

36) ‘-습니다’는 전통적으로 들을 이를 높이는 말로 설명하였다. 가능한 설명이지만, 말하는 이의 겸손 쪽에서 이 말을 접근하여 설명하는 것이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더 잘 어울리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격식체로 보는 관점에서도 스스로 겸손을 갖추는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본질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문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의 문체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문체가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하는 문체로 제한될 이유는 전혀 없다.

‘-습’이 겸양의 ‘-습’ 계열의 언어에서 발전해온 ‘겸양’의 형식이라는 점은 말하는 이의 의도가 ‘겸양’의 형식으로 문장 안에 내포되는 형식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격식의 차원의 의도이므로, ‘-라’ 종결형이 가지는 차원의 주관성은 아니다. ‘-다’ 종결형에서는 ‘-하/습-’의 형식으로 말하는 이가 전제되는 격식적 형식의 문체가 되기도 하고, ‘-하였다’ 형식으로 말하는 이가 배제되는 비격식적 객관적 문체가 되기도 한다. 성경의 평서법 문장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제되는 형식의 문체로 적는 것은 원 본문의 전송 방식과도 통하고, 그 본문이 회중 예배 때 다시 입말로 낭송이 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사용 현장의 형식과도 통한다.

현금의 방송 문체는 모두 ‘-습니다’를 종결형으로 하는 격식체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겸손법이라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적절한 표현 형식이다. 예의를 갖춘 형식의 표현인 ‘-습니다’ 체는 성경의 평서법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되기에 아주 적절하다. 그대로 품위 있고 격식 있는 형식의 문장이 될 수 있고, 눈으로 묵독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읽거나 거부감 없이 읽힐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체이기 때문이다.³⁸⁾

6. 맺음말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라’는 ‘주관적 제시’(사실 규정) 차원의 진술이다. 평서법 문장에 사용된 ‘-라’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들어 있는 말이다. ‘주관적 제시’의 속성이 있다. ‘-이라’는 들을 이를 직접 상정하지 않는 문장체의 종결 서술형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장을 매개로 할 때에 생기는 발화자와 수용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해라’체의 반말로만 이러한 문장 형식을 규정하여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장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되어 온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니라’는 ‘이라/아니라’가 가지는 사실 진술의 차원에서 ‘-니.’가 추가된 형식이다. ‘-니.’가 추가됨으로써 그 진술이 세상 안의 사건으로 공간화 사물화 현장화(현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니.’의 속성을 근거로 ‘진리나 으레 있는

37) 장수경, “1920년대 아동문학에서 ‘-습니다’ 체의 형성과 구술성”, 『비교한국학』 15:2 (2007), 47-70.

38) 전무용은 어린이 성경을 위한 평서법 종결형으로 ‘-요.’를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42.

사실을 일러 줄 때에 쓰이는 종결 어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말씀은 곧 하^느님이 시라”는 규정적[-공간성] 사실 제시의 표현이 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는 현실적[+공간성] 사실 제시의 표현이 된다.

셋째, ‘-다’는 경험된 사실 또는 사건을 가시화 객관화 하는 속성이 있는 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를 통해서 인지된 상황이 ‘사실적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담기지 못한다. 의도가 배제되는 표현 형식이다.

한국어에서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라’와 ‘-다’의 문체적 특징으로 ‘주관을 드러내는 표현’과 ‘객관을 드러내는 표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각각 ‘주관적 설명체’와 ‘객관적 설명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라/-이다’는 ‘평상적 설명체(평상체)’로, ‘-입니다’는 ‘격식적 설명체(격식체)’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평서법 문장을 문체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설명체	객관적 설명체
평상적 설명체	-라/ -니라 (-이야/-이여)	-(었)다
격식적 설명체	-이오/-어요(본고에서 논하지 않음)	-니니다 -습니다

넷째, ‘-다’ 종결형은 ‘객관주의’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현대적 사유를 반영하는 문체이다. 사실이 사실 자체로 객관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적 사유나 현대적 어법에 잘 어울리는 형식이다. 대부분의 현대어 성경에서 사용한 ‘-하였다/이었다’ 체의 문장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하는 문체이다. 말하는 이가 배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체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읽기에는 좋으나, 회중 예배 때에 소리를 내서 읽는 성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예의를 갖춘 ‘-입니다’ 형식의 표현은 성경의 평서법 종결형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그대로 품위 있고 격식 있는 형식의 문장이 될 수 있고, 눈으로 묵독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읽거나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고, 누구에게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체이기 때문이다.

<주요어>(Keywords)

sentence endings, Bible translations, Bible style, ‘-ra’ ending, ‘-da’ ending, -sūbnida.

문장 종결형, 성경번역, 성경문체, -라 종결형, -다 종결형, -습니다.

(투고 일자: 2009. 8. 20, 심사 일자: 2009. 10.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10. 14.)

<참고문헌>(References)

- 『예수성교요안네훈복음전서』, 로스 외, 1882.
『新約聖書約翰傳』, 이수정, 1884.
『예수성교전서』, 로스 외, 1887.
『성경전서』, 성경번역사회, 1911.
『성경개역』, 성경개역사회, 1938.
『새번역신약전서』, 대한성서공회, 1967.
『공동번역성서』,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표준새번역』,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메이첸, J. G.,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이영근 역,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 2002.
- Macintyre, John, “NOTE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8 (1880), 149-156, 230-234; 9 (1882), 28-33, 89-95, 219-223.
- 고영근,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974 ㄱ).
- 고영근,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1974 ㄴ).
- 고영근,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1976).
- 고영근,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7 (1982).
- 고영근, 『개정판표준중세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2008.
- 곽용주, “‘-다’ 부정법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124.137.201.223/main.jsp>
- 김영옥,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

- 제점 해결을 위하여 -공형태의 설정과 비문법화”, 『관악어문연구』 14:1 (1989), 27-36.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7.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국역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박나리, “국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서법어미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18 (2000), 321-346.
- 박영순, “열녀춘향수절가” 완판본,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2004, 2008, 374-448.
- 박영환, “국어 어원 연구의 실제”, 『한남어문학』 23, 1998, 279-300.
- 박창해, 『한국어 구조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90.
- 박창해,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 박현순, “국역성서 어휘와 문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88.
- 서정수, 『수정증보판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7.
- 손세모돌, “『성경직히』 문장의 문체적 특징”,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91, 75-109.
- 안병희, “주체겸양법의 접미사 ‘-습’에 대하여”, 김종손 편, 『국어경어법연구』, 서울: 집문당, 1984, 253-277.
-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 (1877-1939)”,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
- 유목상, “이다 (이라) 고”, 『어문논집』 2:1 (1962), 15-60.
- 유송영, “종결어미 연구사”, 『현대의 국어연구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3.
- 윤석민, “현대국어 문장종결법 연구(I)-설명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1995), 263-292.
-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 윤성진, “어미 ‘-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0.
- 이광호,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 (1983), 137-168.
- 이승욱, “종결형어미의 통합적 관계-{-다} · {-라}의 소성 기술을 위하여-”, 『남정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80, 283-300.
- 이유기, “후기 중세국어 종결어미 ‘-다’와 ‘-라’의 관계”, 『동악어문론집』 29

(1994), 327-354.

- 임홍빈,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1983), 97-136.
-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5.
-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2002.
- 장수경, “1920년대 아동문학에서 ‘-습니다’ 체의 형성과 구술성”, 『비교한국학』 15:2 (2007), 47-70.
- 전무용, “매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월간)창조문예』, 132 (2008), 161-169.
-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42.
- 정길남, “초기 국역성서의 표기법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233-265.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29/1987.
- 표성수, “한글 성서 문체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소고 -오대 주요 번역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71.
- 한국어문학회편, “홍길동전”, 『고전소설선』,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허용, “14C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김종손 편, 『국어경어법연구』, 서울: 집문당, 1984, 159-216.

<Abstract>

A Study on Sentence Endings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Mr. Moo-Yong Jeun
(Korean Bible Society)

Endings of sentences used in the Bible can be classified mainly into two categories, which are the '-ra' and the '-da' endings. The '-da' endings can be again classified into sentences closing with '-(at/öt)da' and '-(at/öt)sübnida'.

The first type of ending, '-ra' implies the 'subjective thinking, intention' of the speaker, and connotes 'subjective presentation' of the speaker. '-ira' is used to conclude sentences that does not have direct intended audience.

In the second type of ending, '-inira' which has '-ni-' inserted in between, the specific statement becomes an incident in the world, that gains spatial, objective, and contextual (current) implications. Based on such nature of '-ni-', this type of ending is used 'to deliver the truth or a widely accepted fact', and becomes the expression to present realistic (+ spatial) facts.

The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third type of ending, '-da' is a form that implies 'visualization and objectification', and has observed cases where the given situations were presented 'visually and objectively' through the use of '-da'. Most of the contemporary Bible translations adopt '-hayödda/-iyödda' sentence endings, which are used to deliver objective facts. But because they exclude the speaker, it is an inappropriate ending style for use in the Bible which is meant to be read aloud.

The last type is the polite ending, '-ibnida', which is appropriate for use as sentence endings for the Bible. Such sentences by themselves sound formal, and are read aloud with ease, and are accepted as refined by any reader.